

#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우리의 통일환경



통일 돋보기  
남북한 기대수명,  
12살 차이



통일을 여는 사람들  
철도는 남북한 통일을 넘어  
대륙과 '소통'하는 길!



통일Talk  
영화로 만들어가는 통일!  
레디 액션!

포커스

##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우리의 통일환경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야 통일이 달성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

더보기 →



행복한 동행  
어깨동무 멘티 가족들이 말하는  
'우리 동네 멘토는...'



골든벨 이야기  
퀴즈대회로 배우는 통일,  
즐길 준비 됐나요?



Today 남북  
북한 상업광고,  
경제적 자유화의 신호탄?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  
탈북고등학생,  
소녀시대 노래 대신 얻은 것은?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독일통일과 양안모델에서  
한반도 통일 방안 모색



Nuac News  
'광복70주년 기념'  
제2차 평화통일 대토론회 개최



느낌 있는 여행  
너무 흘러가는 것들을 위해  
잠시 머물다, 서울 샅강



통일 웹툰  
통일한국 워킹홀리데이,  
전 세계 열풍!!



통일 레시피  
단맛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강연파배기'



이벤트 당선작  
남북청년들이 유라시아대륙을  
여행하는 찬란한 미래!



이벤트  
1. 17기 출범 축하 EVENT  
2. 내 친구의 작품을 소개 합니다~







##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우리의 통일환경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야 통일이 달성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몇몇 변수들의 경우 통일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사건이고, 관련하여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우리의 통일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 내부뿐 아니라 한반도 바깥에서 발생하는 통일친화적인 요인이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정책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우리의 통일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대체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들어 미일관계가 부쩍 가까워지면서, 소위 양국간 '신(新)밀월관계'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미일 양국은 TPP(환태평양경제협력체) 조기 체결을 확인하였고, 특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입각한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제도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실 미일 '밀월관계'라는 표현의 기원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이름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론야스' 밀월관계는 미일 협력관계의 상징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미국의 의지가 읽혀진다. 과거 '론야스' 밀월관계 당시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한 배경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일관계와 한미관계가 마치 일종의 대체재(代替財)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아시아의 평화, 공존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핵심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스스로 혼자만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각 지역의 다양한 거점 파트너 즉 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우리의 통일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강화는 당연히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된 한국이 통일을 이룬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문화적 다원성 등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일이며, 따라서 미국과 함께 일본을 통일 우군으로 확보하는 일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역내 질서의 변화가 일부 국가에게는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거나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지겠지만, 동시에 일부 주변국에게는 불안과 우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자국히 상식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중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현실을 전제로, 우리의 정책적 자율성을 넓혀 나가는 부단한 노력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불문가지(不問可知)가 되었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적극적인 협조자로 인정하려는 분위기이다. 소위 미중에 의한 글로벌 공동리더십을 표현하는 'G2'라는 표현에 중국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된 것이 2011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아시아와 글로벌 질서는 이제 막 보편적인 G2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G2가 가지고 있는 강대국 정치의 특징을 한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20세기의 미소간 양극체제,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체제 등과 같이 각 시대마다 핵심적인 강대국 정치의 특징이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G2는 어떤 차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가? 학자 및 정책결정자들은 바로 '협력과 갈등의 공존'이라고 설명한다. 즉, 미국과 중국은 특정 이슈에서는 조화롭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이슈에서는 첨예한 경쟁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중간 갈등과 경쟁을 보일 대표적인 사례로 한반도 문제를 꼽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익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역사적으로 통일을 달성한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주변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통일을 이룩한 나라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역내 질서의 변화가 일부 국가에게는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거나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지겠지만, 동시에 일부 주변국에게는 불안과 우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지극히 상식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중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현실을 전제로, 우리의 정책적 자율성을 넓혀 나가는 부단한 노력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 우리만이 제안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이슈를 적극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 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과 역내 국가들에게 한반도 통일에서 비롯된 다양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결론을 대신해서, 한반도 통일에 민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주변국들이 동아시아 질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안보질서 유지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의 정책 변화와 흐름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비록 외교역량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이 걸린 사안의 경우 지금까지 '총체적 외교전'을 통해 외교역량의 열세를 만회해 오곤 했다.

이제 한반도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가 운명이 걸린 목표가 우리 앞에 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 우리만이 제안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이슈를 적극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 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과 역내 국가들에게 한반도 통일에서 비롯된 다양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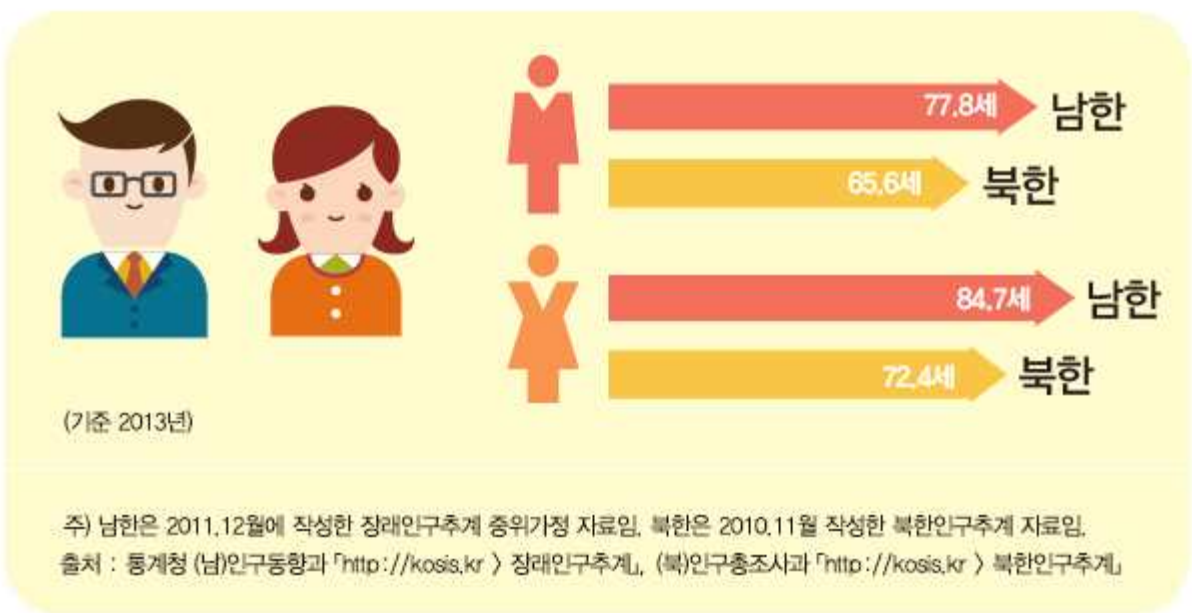




우리나라 출산율은 1.39명으로 부부 10쌍(20명)이 결혼하면 자녀는 14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이번 호에서는 통계청의 '2014년 북한 통계지표'를 근거로 남북한 주민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성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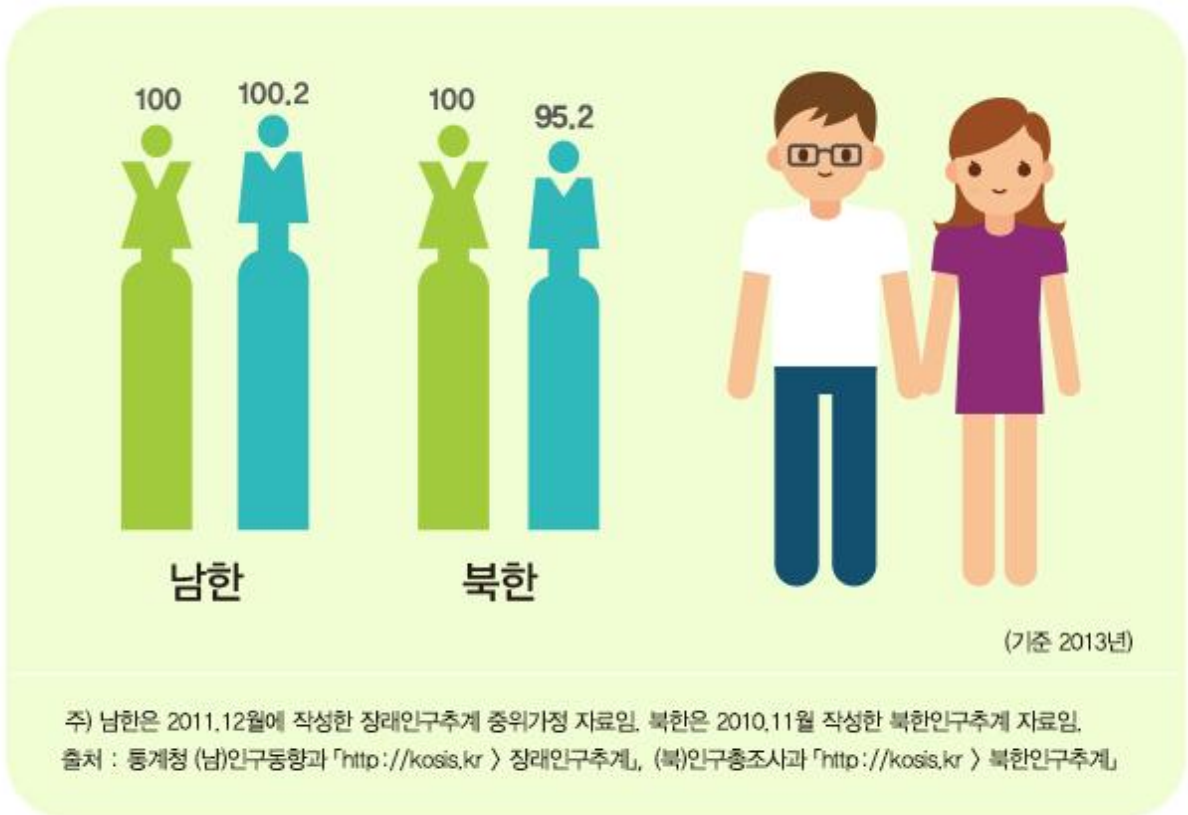
## 남북한의 기대수명

남한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77.8세, 여자는 84.7세이며, 북한은 남자가 65.6세, 여자는 72.4세(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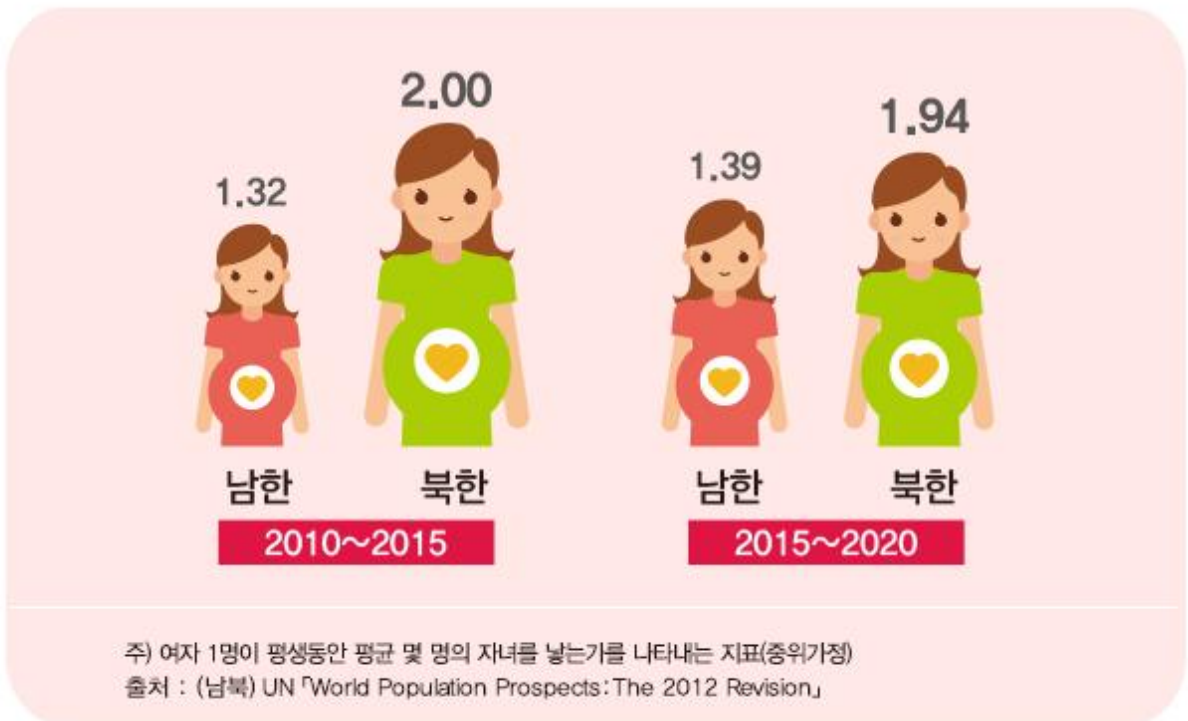
# 남북한 인구별 성비

남한의 인구별 남녀 성비는 100.2%로 남성이 더 많고, 북한은 95.2%로 여성이 더 많음(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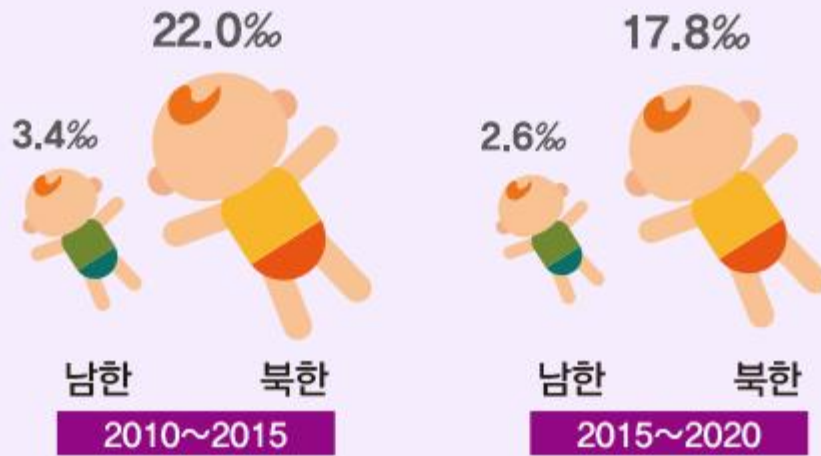
# 남북한 합계 출산율

2015~2020년 기준으로 남한의 출산율은 1.39, 북한은 1.94명. 2명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어도 부부가 낳는 아이는 2명이 채 안 됨



# 영아 사망률

2015~2020년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7.8%(퍼밀, 1,000명 당 비율), 남한은 2.6%로 추정됨.



주)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 해 1년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로 나눈 비율로서 보통 1,000분비로 나타냄(중위가정)  
출처 : (남북)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 철도는 남북한 통일을 넘어 대륙과 '소통'하는 길!

**최연혜** 코레일 사장

백아가 있는 짧은 여름날, 눈부신 햇살 아래 아생화가 수놓인 초원 너머로 끝없이 드리워진 청록빛 툰드라, 바로 기차에서 내려다 본 시베리아의 여름 풍경이다. 중국과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거쳐 '통일의 나라' 독일로 가는 대륙의 길, 아름다운 시베리아 풍경은 철도가 주는 작은 선물이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이 길은 '우리의 길'이기도 했다.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청년 손기정도, 바이칼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이광수 선생도, 하얼빈 의거를 단행한 청년 안중근도 모두 이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오랜 분단으로 인해 이 길은 잊혀지고 말았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대륙으로 향하는 이 길을 우리 민족에게 되찾아주는 것이 그녀의 '꿈'이라고 했다.



### 독일 통일을 앞당기고 유럽물류 통일한 '철도의 힘'

"오랫동안 꿈을 그리면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동안 남북분단으로 인해 섬 아닌 섬에 갇혀 있다 보니 철도인으로서 오랫동안 대륙철도를 동경해왔고, 대륙을 지나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염원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 역사상 첫 여성 CEO로 철도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관련 서적들도 출간한 철도 전문가다. 최연혜 사장이 이처럼 철도에 천착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최연혜 사장은 독일 유학할 당시, 통일 전후 동서독 통합과 유럽대륙간 물류통일을 이뤄낸 '철도의 힘'을 지켜봐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럽대륙은 지금 이른바 '철도의 르네상스'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독일 통일로 물리적 국경이 사라졌고 구 소련이 붕괴, 해체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 동구권 국가들이 EU경제권에 참여함으로써 물류통일이 이뤄진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철도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 철도로 각 부문의 효율적인 통합을 주도한 독일의 사례에 주목했다.

"독일 철도는 분단기에 동서독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고, 통일 후에는 국토를 하나로 통합하는 혈액이 되어줬어요. 분단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철도가 단절 없이 운행되면서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이 통일의 결실로 이어진 거죠. 동독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통일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철도와 통신을 통한 끊임없는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 최연혜 코레일 사장

## 남북한 철도 연결은 '가장 기초적인 통일준비'



▲ 동해선 제진 남북철도연결사업 막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사회 전반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통일 대박은 어쩌면 이 철도 연결에서부터 시작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철도는 단절된 남북한 국토를 잇는다는 상징성도 크지만 인적, 물적 교류를 가능하게 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연혜 사장은 분단 70년으로 남북이 서로 많이 달라졌지만 거의 유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연결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통일 준비라고 강조했다.

"철도는 통일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북한은 토지 등의 현물을, 우리는 기술이나 자본을 투자해서 철도를 건설하면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으로 북한지역의 재건사업을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북한의 경우 교통체계가 철도 위주로 돼 있는데다 실제로 산악지형이 많아 수송

의 효율성은 철도가 가장 높아요. 북한도 경제 부흥에 철도가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철도는 IT, 전기, 시설, 토목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종합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남북한간 철도가 연결될 경우 북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최연혜 사장이 통일에 있어 철도의 역할과 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하는 이유는 남북간 열차운행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철도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동일한 시스템으로, 지난 2007년 5월 남북간 열차운행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간 열차운행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당장 남북으로 철도가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SRX 통해 현실로

통일은 단순히 남북만을 통합하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 너머에 있는 '새로운 대륙이 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활동범위를 드넓은 대륙으로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

"오랜 냉전시대를 겪는 동안 주로 미국 등 서구문화를 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낯설어 하면서 굉장히 먼 곳, 우리와 관련이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1930년대 이광수 선생의 소설 '유정'만 보더라도 사랑의 상처를 입거나 시련이 찾아오면 미국으로 가지 않고 시베리아나 바이칼 호수로 도피를 하잖아요. 그만큼 대륙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가까운 곳이었고, 물리적으로도 직접 연결돼 있었던 곳인 거죠."



▲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앞에 서 있는 코레일 최연혜 사장

▲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폴란드 바르샤바 OSJD 회의참석하여 제유회원 가입서명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2014. 3. 21)

이런 맥락에서 남북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연결하는 민족사적 의미 외에도 동북아 안정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연혜 사장은 남북철도를 운행할 경우 북한체제를 개방으로 이끄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대치 상황을 끝내고 긴장을 완화시켜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통상 4주가 소요되는 해상수송에 비해 철도는 15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연간 수천억 원 대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함께 국내제품의 해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산에서 출발한 우리 기차가 북한을 거쳐 중국, 만주, 러시아를 달리며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면,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패러다임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통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 청년들이 대륙과 소통하는 길은 바로 철도

최연혜 사장은 "이 땅의 청년, 청소년들이라면 대륙열차를 타고 유라시아를 횡단해 통일의 꿈을 이룬 베를린까지 달려가는 경험을 꼭 한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통일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고, 통일을 통해 남북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륙, 우리에게 잊혀졌던 대륙까지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국토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외교부와 함께 오는 7월, 19박 20일 동안 추진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 이벤트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연혜 사장이 생각하는 철도의 힘은 '교류와 연결'이다.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가면 철도는 '소통'이 된다. "남북한 철도 연결은 단순히 수송량을 늘리고 물류비를 절감해 경제성을 올린다는 목적 때문만은 아니에요. 비행기나 버스나 해운과 달리 철도는 대륙의 모든 면과 선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접촉면이 넓거든요. 기차로 여행을 하다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과 만날 수 있어 새로운 기회와 상상력, 창의력을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기차여행을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게 될 거고, 통일을 가슴 뛰는 일이라 생각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글/사진. 기자회견>







흔히 '종합예술'이라 불리는 영화는 그 어떤 매체보다 대중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 하나금융그룹과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는 '미래 통일리더아카데미' 영화 제작팀 팀원들은 이러한 영화의 힘을 잘 알기에 '통일'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 세상이라는 바다에 작은 돌을 하나 던져보려고 한다. 이들이 던진 돌이 작은 물결을 만들고, 이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길 수 있도록 멋진 영화를 완성해내길 기대해 본다.

### 6월 통일토크 참가 학생

**김봄희(동국대학교 연극학과 4학년, 조장)**

한국 정착 8년차. 북한에서 예술을 전공했고 한국에서 학업과 함께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WEST(한·미 취업연수) 프로그램으로 미국 북한인권 위원회(FMC)에서 인턴십을 거쳤으며 학업을 마친 뒤 다시 유학을 떠날 예정.



**문주은(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지만 영어보단 노래를 더 잘한다는 여학생. 긍정적 인생관이 최대의 강점이며 앞으로 PD가 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삶과 통일에 대해 재미있고 뜻 깊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진 중.



**김현진(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1학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열혈 공학도, 대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하고 있다. 앳돼 보이는 얼굴과 달리 차분하고 조리있게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 인상적.



**박상하(연세대학교 테크노아트학부 1학년)**

키가 훗칠하고 배우 김수현을 조금(?) 닮은 만능맨.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많고 여러 운동을 섭렵. 특히 미국에선 테니스 대회에도 출전할 정도. 상징이 살아 숨쉬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박운송(고려대학교 북한학과 1학년)**

7살때 기름개구리를 잡아다 판 이래 18세까지 북한에서 장사를 했다는 타고난 CEO. '맞지 않을 정도'의 복싱 실력을 가진 데다, 짧은 기간동안 놀라운 의지로 검정고사를 패스한 노력파.



 **통일에 대한 '진짜 나의 생각은 뭘까?'**

**주은**▶ 모 일간지에서 기자단 활동을 했을 때 탈북여성들을 위한 토크콘서트 취재를 갔어요. 공연 후 어떤 남학생이 '탈북학생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그 여성분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라고 말했어요. 통일이 되면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좋은 마음인데도 잘 표현이 안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탈북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이런 대외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상하**▶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받는 통일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었다고 생각해요. 대학생이 되고 나니 '통일에 대한 진짜 내 생각은 뭘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북한 관련 정보를 찾아봤는데 북한주민들의 일상과 문화에 대한 정보는 너무 적더라고요.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면 저도 이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될 거고, 이 정보를 저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공유하고 싶어요.

**봉희**▶ 한국에 와서 대학엘 갔는데 문화 차이를 심하게 겪었고 가치관도 다르단 걸 느꼈어요. 그땐 '이 상태로 통일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조차 들더라고요. 연극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고 사람 사는 넓은 세상이 궁금해 '스페셜 웨스트'로 미국엘 갔어요. 영어공부를 하면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에서 인턴십을 하는 동안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걸 알았죠. 돌아와서 통일을 준비를 하려면 남한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래통일리더십아카데미에 지원했어요.





**현진** ▶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형식적인 통일교육에 의문이 있었어요. 포스터만 그린다고 해서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생기진 않잖아요. 이후 경제적 측면까지 생각이 넓어지다 보니 한정된 영토를 가진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선 통일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걸 깨달았죠. 통일이 단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해야 한단 생각, 그게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이란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했었어요.

**운송** ▶ 제 의지라기 보다는 먼저 와 계신 부모님을 따라 남한에 왔어요. 이곳에 와서 자유란 걸 알게 됐죠. 음... 자유란 저에겐 꿈을 위해 세계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폐쇄적인 북한과 달리 남한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자유'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본 적조차 없을 북한 친구들이 자유를 빨리 찾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한 사회에 대해서도 알고, 북한도 현실로 겪었으니 이 두가지를 융합한다면 뭔가 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남북한 대학생들이 함께 '통일영화'를 만든다는 것

**상하** ▶ 북한문화나 북한주민들의 일상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직접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보니 확실히 미국에서 만나왔던 외국인친구들에 비해 동질감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영화를 매개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함께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것을 풀어내고 싶어요.

**주은** ▶ 사실 편견을 갖고 활동에 참가했었지만, 막상 만나 보니 우리와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들었고, 오히려 장기 자랑 같은 걸 했을 때 봉희 언니가 춤을 너무 잘 추고 멋있어서 '남한대학생보다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끼와 재능이 많구나, 아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생각했죠.

**운송** ▶ 우리 영화팀원들 '스펙'이 좋잖아요(웃음). 전 북한에서 왔고 검정고시로 대학엘 왔는데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엄청 잘 챙겨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미리 미리 준비하면 더 좋은 영화를, 좋은 통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제작 활동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 많은 것 같아요.





**현진** ▶ 처음엔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이탈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에서 온 봉희 언니나 운송이 오빠의 경험을 들으면서 아직 저는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봉희 언니가 장학금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장학금이 없다면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은 그동안 많은 역경을 이겨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지향점이 비슷하다는 게 굉장히 기뻐요.



**봉희** ▶ 신입생 때 남북한 사람들의 문화차이, 가치관 차이로 많은 방향을 해서인지 처음 만났을 때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캠프활동 하면서 남한 친구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들의 이 이야기가 영화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통일이 올거라는 믿음이 확고해요. 그렇게 될 것이고 꼭 되어야만 해요. 이제 곧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결혼식장에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으니까요. 아빠가 북한에 계시는데, 통일이 당장 안 되더라도 자유롭게 기차나 혹은 버스를 타시고 서울까지 내려오셔서 저랑 같이 식장에 갔으면 좋겠어요.(웃음)

## 남북한 학생이 만든 영화, 외국영화제서 상영된다면

**운송** ▶ 북한 남한 구분을 떠나서 사랑이나 우정을 주제로 북한 사람도 따뜻하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국민 전체는 아니어도, 한 사람이라도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주은** ▶ 한국인 여성이 인도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겪는 어려운 상황을 TV 모 프로그램에서 접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이입을 하니깐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고, 동시에 우리나라 다문화 여성분들의 삶의 애환이 한순간 확 다가왔어요. '영상이 가진 힘이 이거구나'라고 느꼈죠. 저희도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화도 텔레비전 나가면 좋겠네요(웃음).

**상하** ▶ 베트남전쟁을 다룬 코폴라 감독의 영화 '지옥의 묵시록'처럼 우리 영화도 '통일이 좋다'와 같은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 보다, 다양한 장치를 통해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 영화를 통해 베트남전쟁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졌듯 통일과 탈북민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봄희** ▶ 영화제에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 뿐 아니라 예술인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요. 영화를 통해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점들, 통일에 대한 열망 등을 공감할 수 있길 바래요. 장 피에르 다르덴 형제가 만든 '로제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스토리가 스펙터클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되는 게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내는 이해와 공감같은 거요. 우리도 이처럼 '소통'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상하** ▶ 얼마 전 유럽단편영화제를 가봤는데, 다양한 유럽의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만든 영화도 남한, 북한이탈 학생들이 모여 만든 영화라는 자체만으로도 외국인이 보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규모가 작더라도 외국 영화제에 출품하고 싶네요.

**현진** ▶ 상하 말대로 영화제 출품까진 아니더라도 저희만의 상영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상영제를 열고 SNS를 통해 알린다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영화의 파급력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젊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윤송** ▶ 남한 학생들을 보면 공부는 잘하는 데 꿈이 없고, '왜 사는 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요. 제가 보기엔 저 정도 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요. 통일을 꿈꿔 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통일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만화처럼 재미있게 만들면 청년들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주은** ▶ 저도 동참해요. 당장 우리 살기가 바쁘니까, 통일이 내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갖기 어려운 거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남북한 사람들에 관한 시트콤도 있던데 아직은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PD가 되면 통일관련 콘텐츠들을 재미있게 만들어 볼래요.

**상하** ▶ 그래도 주위를 둘러보면 젊은 사람들도 계기만 주어진다면 통일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SNS나 대중매체에 탈북민들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나운서 등 다양한 방면에 탈북민들의 활동이 많아지길 바래요.





**봄희** ▶ 각 학교마다 북한이탈 친구들이 있는데 일부러 가서 친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법을 추천해요. '말투가 다른데?'라며 한 걸음 물러서지 말고 10분만 앉아서, 다들 거라는 편견을 버린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현진** ▶ 일단 20~30대가 관심을 가지려면 각종 통일관련 프로젝트나 아카데미 등에 투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래통일리더 아카데미 참가하는데, 다른 친구들도 SNS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알고 참여하는 걸 봤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열리면 적게는 몇 십명에서 많게는 몇 백명이 통일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같아요. 어른들이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잘 잡고서 참여해 나가는 것은 저희세대의 몫인 거지요.

〈글/사진. 기자회견〉



## 영화제작팀의 멘토 이규희 감독

북한이탈 대학생들과 남한 대학생들이 함께 영상제작을 하게 됐는데 멘토가 되어 통일 비전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통일에 대해서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허리역할을 하는 나이가 됐다고 평소 생각해 왔는데, 통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머지않아 통일이 이뤄지겠구나란 생각이 들어 흔쾌히 수락했어요.

실질적으로는 통일의 시작점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한 주민들이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한민족이란 공통분모 아래 같이 서로 이해하면서 배려하며 통일을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시놉시스가 결정됐는데, 영화는 SNS를 통해 전파가 쉽도록 단편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SNS를 통해 남한은 물론, 북한에까지 이 영화가 알려지길 바라요. 남북대학생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고,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요.







## 어깨동무 멘티 가족들이 말하는 '우리 동네 멘토는...' 경남 진주시협의회

새들은 튼튼한 동지를 만들기 위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새끼들을 결코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다. 어깨동무하기 멘토링도 새가 집을 짓듯 알기설기 촘촘하게, 견고하게 이뤄져야 한다. 아직 남한주민들과 동등한 조건을 갖지 못한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마음껏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단단한 동지를 짓고 있는 진주시협의회 멘토자문위원들의 마음도 이 어미새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 인준이·인화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됐더라고요”

윤인석 멘토 자문위원의 멘티인 인준이(가명, 중2)와 인화(가명, 초6) 남매는 중국에서 남한으로 온 지 3년 됐다. 북한이 고향인 엄마와 중국인 아빠,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막내 동생까지 다섯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인준이 남매는 인사성이 밝고 착해 진주시협의회 멘토 자문위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인준이는 수줍은 성격에다 아직 한국어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약간 서툴기는 해도 1년 사이 성격이 매우 활달해졌고 부쩍 자신감이 붙었다. 인준이는 만나자마자 대뜸 학교 성적을 자랑한다.

“옛날에는 영어를 20점 맞아서 270등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68등이에요. 수학은 6등이고요.”

윤인석 멘토 자문위원은 지난해 인준이를 영어학원에 보내줬는데 한국말이 서툰 탓인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자, 인근 학교에 재직중인 재능기부 선생님을 연결해줬다. 따로 학습지도를 받고부터 탄력을 받게 된 인준이의 영어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돼 갔다.





▲ 안경 후원을 받는 인화  
 ◀ 윤인석 자문위원의 팔에 매달린 인화 인준 남매

공부를 제법 잘 한다는 인화에게는 안경을 선물해줬다. 윤 위원은 지난해 축구장에 갔을 때 유독 인화만 경기 모습을 잘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흘려 듣지 않고 기억했다가 지인의 안경점에서 후원을 받아 인화에게 맑고 깨끗한 세상을 선사했다.

처음 남한에 왔을 때, 인준이 엄마는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덜컥 겁이 났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싫어했어요. 애들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저도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간 뒤에 자문위원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학교 생활도, 학교 성적도요.”



▲ 재능기부 선생님의 영어학습 지도

무엇보다 윤 위원이 남편을 취업시켜준 것은 다섯 가족 전체의 삶에 행복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아빠는 시력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았으며, 한 쪽 눈

이 거의 실명상태인 데다 아직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 일하러 나가는 날보다는 집에서 쉬시는 날이 많았는데 전기시공을 하는 윤 위원의 회사에 취직해 일하면서부터 가족의 생활이 빠르게 안정돼 갔다. 특히 인준이 엄마는 벽지에 물이 새던 원룸집에서 방 두 칸에 거실 딸린 집으로 이사 간 것이 더없이 좋다고 했다.

“너무 변화가 많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됐더라고요. 애 아빠도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 ‘진주시 멘토들의 리더’ 윤인석 자문위원



멘토 자문위원님들 모두 지난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주 만나면서 대화하고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경계심이 풀린 것 같아요. 멘토링 전에 학교 선생님을 만나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쭙보고 학습지도를 좀 했더니 성적이 크게 오르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질문을 해도 답변을 잘 안 하거나 전화도 잘 안 받고 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할 정도로 적극성을 띄게 되었어요. 만날 때마다 기대를 하고 또 그만큼 성장해 주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멘티 가족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살펴 주고 싶어요.



## 민호네 “가정까지 두루 챙겨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희천·김철웅 자문위원의 멘티인 민호(가명, 초6)는 인준이네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온 엄마, 중국인 아빠와 함께 8살 때 한국에 정착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민호는 살이 많이 썬 비만을 염려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체중도 줄었고 키도 많이 자랐다고 한다. 지난 해 멘토자문위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 중 언제가 제일 재미있었냐는 질문에 “축구장에는 처음 가 봤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밤에 경기를 하는데도 밝아서 신기했으며, 경기장에서 치킨과 빵튀기를 먹었던 게 즐거웠다”고 말하는 민호.



◀ (우측부터) 이희천 자문위원, 민호, 김철웅 자문위원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아이들 ▶



민호 엄마는 처음 어깨동무를 한다고 했을 때 ‘밥이나 한 끼 먹자’는 걸로 생각했었지, 아이들과의 관계를 넘어, 두 멘토가 깊이 가정 생활까지 두루 챙겨주실 줄 몰랐다며 고마워했다. “우리 민호가 남을 대할 때 쑥스러워 해서 앞에 나서지도 못했는데 요즘엔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예의범절 같은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동안 멘토와 멘티 가족은 한 달에 두 번 ‘맛집탐방’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또 ‘뭔가 불편하다, 할 줄 모른다’고 말하면 두 멘토가 자진해서 달려와 주었다. 김철웅 자문위원은 민호가 컴퓨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를 가르쳐주며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 이희천 자문위원은 아예 본인의 사업 외에 식당을 따로 새로 개업해서 민호의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애 아빠는 허리가 아파서 반년동안 집에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도 디스크협착증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는 못해요. 이해해주고 봐주니까 그렇지, 다른 데 가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민호 엄마는 항상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했다며 자문위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이희천·김철웅 멘토 자문위원



이희천 자문위원

민호는 처음 봤을 때 너무 조용하기도 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가족모임을 하자는 취지로 만났는데 지금은 마음도 열고 어느 다른 모임보다 돈독한 점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민호의 덩치가 '산' 만했는데 몸 관리도 잘되고 있고 아주 많이 밝아졌으며, 차분해졌어요. 멘티에게는 약속 잘 지키기 등을 포함해 항상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 저도 멘토링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습니다. 멘티 가족들과 맛집 탐방을 하던 중 민호 아빠가 맛있게 드시는 음식이 있어, 그걸 테마로 프랜차이즈 식당을 연다면 민호 아빠와 엄마가 함께 일하면서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 식당을 열었어요. 특히 두 분이 같이 일터로 나갔다가 같이 들어오니까 민호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멘토링을 어떻게 꾸려갈까 고민했는데 이희천 선배가 가족 중심, '또 하나의 가족'을 컨셉으로 다가가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멘토가 둘 다 또래 자녀를 데리고 함께 했더니 그만큼 빨리 동화되고 경계심도 풀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민호가 처음에는 집안에서 컴퓨터를 주로 하는 등 은둔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바깥에서 야외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게 남한에 많이 사는 지 몰랐고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편견이 많이 깨졌어요. 멘티를 만나서 오히려 배운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김철웅 자문위원



## 현미네, “운동부인데 색다른 체험 많이 했어요!”

김선옥·손성은 자문위원의 멘티인 현미(가명, 초6)이도 8살에 남한으로 왔는데, 지금은 여자축구선수 '꿈나무'로 한창 성장하는 중이다. 현미는 멘토와 같이 보낼 시간이 별로 없다보니 멘티 아이들 가운데 가장 늦게 마음을 열었다.



현미는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키가 115cm였는데 지금은 163cm로 자랐다. 운동을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깨동무멘토링에서 원호영 회장에게 후원받은 한약의 효과를 본 것 같기도 하다고. 현미는 처음 태권도 선수가 꿈이었다가 지금은 축구를 하고 있지만 멘토선생님과 대화를 한 후부터는 경찰이 되겠다는 꿈도 같이 꾸고 있다. 다른 아이들보다 표정이 무뎠지만 말을 시키자 현미는 의외로 자기 의사를 똑부러지게 표현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즐길 기회가 없었는데 어깨동무를 하면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많이 참가하진 못했어도 선생님들이 계속 연락해주시고 웃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게 좋았고, 겨울 캠프 때 썰매 타고 빙어튀김도 먹었던 기억도 나요.”

안경도 후원 받아서 한동안 잘 쓰고 다녔지만 얼마 전 동생이 '뽀가버렸다'며 웃었다.





## 김선옥·손성은 멘토 자문위원



김선옥 자문위원

설렘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상 연락도 잘 안되고 멘티가 너무 바빴어요. 자꾸 만남이 취소되면서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윤인석 부회장님이 리드 하면서 개별 멘티보다는 전체활동을 해서 다 같이 끌어내서 해보라고 북돋아주셨고, 같이 모이니까 현미도 '친구 있어요? 친구 나오는 거 봐서요'라며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여름방학 캠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진솔한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현미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우는 지 물어보니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는 줄 몰랐대요. 그 이후부터는 연락도 되고 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신명나게 일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교육받을 때는 예삿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교육이 있던 날 멘토 자문위원들끼리 모여 한 번 잘 해보라며 다짐했었어요. 현미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해주고 싶었고, 수혜자를 넘어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매우 열심히 하더라고요. 앞으로 꿈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하고 싶어요.



손성은 자문위원



## 지역민들을 후원자로 만든 멘토 자문위원들

윤인석 멘토 자문위원을 비롯한 진주시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멘토링이 독특한 점은 바로 지역주민네트워크를 멘토링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멘토링 봉사는 시간과 비용상의 지출을 어느 정도 동반하기 때문에 개인 몇몇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멘토 자문위원들이 나서서 주위에 뜻 있는 기관 및 단체 실무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한 후 후원을 받아 지원한 것.



안경원을 운영하는 지인이 시력이 나쁜 인화를 위해 안경을 맞춰주었고, 학원가에 종사하는 한 지인은 인준이가 예습복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를 보내 오기도 했다. 또한 한 교사의 재능기부로 1:1 영어 학습을 받을 수 있었고 진주시협의회 원호영 회장도 '애기들'을 위해 맞춤형 한약을 지어주었다. 인화의 아빠 역시 교통편이 좋지 않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없기에 지역봉사클럽 회원으로부터 자전거를 기증받아 전달 해줬는데, 그덕에 요즘은 매일 자전거로 통근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물품과 현금, 재능기부 등 다양한 후원이 탈북아이들의 '행복 재료'가 되어주자, 윤인석 멘토는 작년 연말에 후원자들을 초청해 그간의 멘토링 과정을 설명하고 정성어린 식사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인석 자문위원을 비롯한 진주시협의회 멘토 자문위원들은 새가 작은 부리로 나뭇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물어와 집을 짓듯 지역사회와 연계해 멘티 가족들에게 '행복 재료'들을 가져다 주었다. 16기 활동이 끝나고 17기 자문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도 이러한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글/사진. 기자회견>





2015년 5월 19일과 20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열린 중학생 '역사퀴즈왕대회'와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광주·전남지역 예선대회. 각각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에 걸쳐 치러진 이번 대회는 우리 역사와 통일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통일'을 즐겁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의 장이자,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회장 밖에는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려는 학생들로**







점심시간 무렵이 되자 광덕고등학교 교정에는 붉은색, 흰색, 파란색 관광버스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학생들은 접수대 앞에 줄을 서서 등록을 마친 후 삼삼오오 흩어져서 교정을 구경하거나 대회장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대회 시작을 앞두고 끝까지 문제집을 내려 놓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동안 열심히 쌓은 실력에 '화룡점점'을 찍는 복습일 수도 있고 '벼락치기' 공부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해 보였다.

해남고등학교 2학년 현진(오른쪽 사진)이는 "작년에도 출전했고 본선까지 진출했는데, 올해는 1등을 해서, 서울 결선대회에 나갈 것"이라고 당차게 포부를 밝혔다.

태균(왼쪽 사진 우측)이는 말 거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평소 역사, 세계사를 좋아하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태균이는 현진에게 1등을 양보하고 2등을 하겠다며 웃었다.



그렇다면 오른쪽 3개의 사진 중 진짜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 맨 아래 광덕고 학생들 무리(?)다. 점심시간을 맞아 다른 학교 친구들을 환영해주기 위해 나왔다가 카메라를 보고 공부하는 척 장난을 친 것. 그래도 '통일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기훈이는 통일이 '미래 한반도를 위한 비전'이라고, 승진이는 '고령화된 한국 사회를 위한 대안'이 되어줄 것이라며 대견한 소릴 했다.



## 통일인재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행복의 장' 되기를







대회는 최현경 아나운서와 개그맨 김성규 MC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회 전 민주평통 나신영 광주부위원장, 송영수 전남부위원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나신영 광주부위원장은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역사적 문제와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한편, 국가안보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새롭게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수 전남부위원장은 “학생들이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고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남과 북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통일인재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통합과 행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아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회는 약 500명의 학생을 A, B 조로 나누어 250명씩 경기를 치른 후, 각 조별로 80명이 본선에 올라가고 최종 ‘베스트 오브 베스트’ 50명이 결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문제는 송영수 부위원장이 출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주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두 정답을 맞춰 가볍게 1라운드를 통과했다. 대회 중간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개그콘서트’ 개그맨들이 영상을 통해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고, 본선 전후로 학생들의 장기자랑과 연예인 공연 등의 이벤트가 진행돼 장내외에 있는 학생들을 즐겁게 했다.





## **때론 거침없이 때론 고전도... 재미있는 오답에 웃음꽃 '활짝'**

중학생퀴즈왕과 통일골든벨 대회에서는 주로 근현대 역사 문제들이 출제됐으며, 북한, 통일정책 관련 문제와 그리고 시사성 있는 문제들도 섞여 있었다. 학생들은 민주평통에서 제공된 기본 문제집과 역사-윤리교과서, 관련 도서 등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듯 거침없이 문제를 푸는가 하면, 때로는 한꺼번에 우수수 탈락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가볍게 예선을 통과한 아이들도, 패자부활전에서 '구사일생' 살아 돌아온 아이들도 매 문제마다 최선을 다했고, 재도전에 실패한 아이들이 옆자리 친구에게 '넌 잘하고 와'라며 격려해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재미있는 오답을 써낸 학생들 덕분에 가끔 웃음이 터져나왔다. 북경, 서울, 도쿄를 연결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 연결축을 일컫는 말을 묻는 질문에 영광여중 슬기 학생(사진 가운데)은 답변인 '베세토' 대신 '사랑해요 박유천'이라 썼고 '아리랑'이 정답인 문제에서는 기쁨조, 모란봉 공연, 김일성공연, 서커스 등의 오답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밖에 브나로드운동 대신 '새마을운동'을, '교도대' 대신 '향토예비군'이란 답변을 써낸 학생들도 있었다.



열띤 경기 끝에 A조 진출자들이 결정되고 B조의 경기가 시작됐다. 대회장 한편에는 이미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이 모여 B조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B조 탈락자들이 패자부활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광중학교 정목희 학생(사진 위, 오른쪽)은 문제를 몰라서 탈락한 게 아니라 못 들어서 떨어졌다고 우기더니 본선에 진출해서 서울에도 갈 거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미 본선에 안착한 덕인중학교 최관우 학생과 김준희 학생은 "A조 마지막 문제가 살짝 헷갈렸을 뿐 어렵지 않았다"며 승자의 미소를 보였다. 재밌게도 준희 학생은 대회 중간에 "중간 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답했지만 이날 최후의 1인이 되어 통일상을 받았다. 광덕중학교 학생들은 1등을 하겠다는 뜻에서 손가락으로 1을 만들어 보였다(사진 아래).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문제집을 '달달 외웠다'는 승호는 평소 역사 지식을 쌓고 신문 등을 통해 시사 상식을 틈틈이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참가학생도 응원친구도 함께 즐긴 장기자랑&공연

중학생 역사퀴즈왕 대회 장기자랑시간에는 많은 여학생들이 자신 출전해 댄스 실력을 선보였다. 빠른 음악, 최신곡, 섹시한 음악을 틀어줘야 한다며 감쪽한(?) 요구를 했지만 대부분 막춤에 가까운 춤사위로 좌중을 웃게 했다. 박수 크기 소리로 선정된 댄스팀 최고상은 유일한 남학생 참가자인 윤림중학교 문별팀(사진 아래 오른쪽)에게 돌아갔다.



고등학교 골든벨 장기자랑 시간에는 좀 더 화려한 댄스실력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함평여고 황정미 학생과 해남공고 정경미 학생이 여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자 응원석의 함성소리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남자 고등학생들의 경우 김성균 MC가 아무리 불러도 지원자가 나서지 않았는데, 광덕고등학교 남자 선생님이 무대로 나와 '샤방샤방' 노래에 맞춰 춤을 추자 제자들도 함께 따라나와 훈훈한(?) 분위기의 사제동반 춤을 선보이기도.





이어 본선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진출자 50명이 모두 가려지자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3인조 힙합그룹 '넥다운'은 통일골든벨을 위해 직접 작곡한 '통일이여 어서오라' 노래를 학생들에게 공개했다. 학생들은 넥다운의 무대를 즐기며 큰 소리로 박수를 치거나 핸드폰 카메라에 공연 모습을 담기도 했다.







##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제, 중학생퀴즈왕 승자를 가리다

공연 열기가 가라앉고 마침내 최종 50인이 자리를 메운 채 본선 경기가 시작됐다. 50명 중에는 운림중학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덕인중학교와 문태중학교 5명, 곡성중학교와 광덕중학교에서 각각 4명이 올라와 있었다. 본선 경기에서 탈락자가 늘어날 때마다 2층 응원석에서는 응원의 박수와 함성 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속속 수상자들이 가려졌다.



평평한 대결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를 묻는 문제에서 승부가 갈렸는데, 덕인중학교 준희가 마침내 최후의 1인, 통일상 수상자로 등극했다.

평화상은 근내중 김윤아, 전남중 김관영, 문태중 이슬비·김여경, 운림중 신재호·이하린·문별, 덕인중 최관우 학생 등이 수상했고 민주상은 영광여중 이도희, 운림중 김태희·안정우·김남준·이주연, 순천향림중 경우연, 대성여중 김루이, 광덕중 한용희 학생 등이 수상했다. 특별상 학교상은 운림중학교, 교사상도 운림중 경미선 선생님이 수상했으며 부의장상은 운림중 박여원, 문태중 김민형, 덕인중 이의성·조운서, 광양중 송준서, 광양여중 이여해 학생에게 돌아갔다.





중학교 퀴즈왕 수상자 모습

## 팽팽한 승부 이어진 고등학교 통일골든벨



고등학교 통일골든벨 본선 역시 치열한 승부를 통해 본선 진출자들이 가려졌다. 특히 A조 패자부활전에서 한 동안 탈락자가 나오지 않자, 최현경 아나운서는 “학생들이 너무 잘 맞춰서 난이도를 조금 높인다”며 흥의병 관련 문제를 출제했고 무려 절반의 학생이 탈락해 응원석으로 올라가는 일도 있었다. 그밖에 근현대사를 넘나들며 다양한 OX문제와 주관식 문제 등이 번갈아가며 출제됐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기 끝에 마침내 영광의 23명의 수상자들이 결정됐다.

이날 통일상은 해인여고 3학년 김린 학생에게 돌아갔고 평화상은 광덕고 김대욱·최인혁·송승민, 창평고 정어진·김창영, 해인여고 이승유·김도희, 영광고 하예림 등이 수상했으며 민주상은 영광고 이상우·정광진, 동명고 박신암·박수형, 동신고 도준혁, 학다리고 서종열, 창평고 김선욱 학생 등에게 돌아갔다. 특별상 학교상은 광덕고가, 특별상 교사상은 해인여고 김동현 선생님이 수상했으며, 그밖에 특별상 부의장상은 광덕고 정주찬, 대동고 나건희, 해인여고 손신영, 덕인고 박다빈, 창평고 남경식, 순천고 장윤혁 학생등이 수상했다.





고등학교 통일골든벨 수상자 모습

<글. 기자회견>

## 이번 대회, 이렇게 봤어요!

### 나신영 | 광주부의장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통일의 주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으니까요. 학생들 세대에는 반드시 통일이 이뤄져서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길 바랍니다.



### 송영수 | 광주전남부의장

학생들이 통일과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통일 인식을 높여 평화통일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통일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수한 통일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성규(사회, KBS 희극인 회장)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힘들더라고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알게 되고 북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느꼈어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 설현숙 선생님과 학생들 | 영광여중

영광여중 친구들 파이팅! 사랑해!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평양냉면도 먹을 수 있고 금강산도 놀러갈 수 있잖아요. 통일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 박정원 선생님 봉황고

우리 아이들이 통일골든벨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상 대회장에 나와서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열의가 넘치고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끝까지 문제를 잘 풀고 살아남아, 서울 결선 대회에 출전해서 골든벨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 김태현, 박성현 | 광덕중학교

정상회담 문제에서 아깝게 떨어졌어요. 우리학교에선 4명 정도 본선에 올라간 것 같아요. 3학년 선배들은 다 살아서 갔으니까요. 통일요? 통일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애들을 만나고 싶거든요. 그냥 북한말을 들어보고 싶어요. 북한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 성제현, 김선혁, 이성호, 도준혁 | 동신고

우리 학교가 통일골든벨에 올해 처음 출전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본선으로 가볍게 넘어온 건 아니지만 최종 승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답을 맞춰가는 방식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통일요?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통일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글\_신대진 박사(서울교육대학교)

북한에서 상업광고는 1980년대 인쇄광고를 시작으로 2002년 텔레비전 광고에 이르기까지 그 매체가 확대되었다. 북한이 광고하는 제품을 보면 설사약, 대동강맥주, 자동차, 판형컴퓨터 등 생필품에서 첨단제품까지 다양하다. 북한이 자본주의 꽃, 광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텔레비전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반복적,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인쇄광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다면 혹시 북한이 텔레비전 상업광고를 시작한 것을 '경제적 자유화'로 가기 위한 신호로 읽을 수 있을까?

### 정치광고인가? 상업광고인가?

평화자동차의 '회파람'. 2002년 북한이 처음 시작한 텔레비전 상업광고이다. 북한에서 상업광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의 실마리를 이 광고에서 찾고자 한다. 얼핏 보아도 북한에서 자동차가 생산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회파람' 관련 북한 방송에서 '선군의 자람'이라는 문구가 사용된다. 북한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나라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북한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평화자동차는 남북합작 회사라는 점에서 당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의 염원과 함께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의미는 '민족의 힘모아 세계로'라는 광고문구에 압축되어 있는 듯하다.



▲ 대동강맥주 광고

◀ 평화자동차의 '회파람' 광고



대동강맥주 광고는 또 다른 북한 광고의 현실을 읽을 수 있게 한다. 2009년에 두 달 정도 광고를 했다가 중단된 후 2013년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 대동강맥주 광고에는 '평양의 자랑, 수도의 새로운 풍경' 등의 문구가 사용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함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대동강맥주가 상당히 인기 있다는 사실은 이미 남한에서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편안하게 대동강맥주를 살 수 있을까. 평양시민은 쿠폰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주민은 장마당에서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가격 차이만큼 대동강맥주의 공급량은 북한주민의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대동강맥주 역시 상업광고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판형컴퓨터 등 IT관련 제품들이 북한에서 자체 생산되고 상업광고에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사회가 김정일이 제시한 첨단돌파전이 성취된 것처럼 느끼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광고 속에도 북한주민이 체제에 만족하도록 유도하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 판형컴퓨터 광고



## 본격적인(?) 상업광고의 등장

얼마 전에 북한 텔레비전에서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미키마우스는 미국이라는 적대국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개방의 단초인가?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미국 회사의 던킨도너츠(북한명 가락지 빵) 광고도 등장했다는 사실은 본격적인 상업광고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 광고는 별다른 문구 없이 던킨도너츠 제품들을 북한식 표현으로 소개하는 정도일 뿐이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도 북한에서 등장했다. 적어도 이러한 광고는 북한주민들에게 '북한식(또는 우리식, 주체방식에 의한) 개혁개방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제를 선전하는 듯 하지만 순수한 상업광고도 있다. 중국 설사약 광고이다. 이 광고는 뉴스보도의 형식을 빌어 여자 아나운서가 등장한다. 그녀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설사를 완화시킨 영웅"이라는 자막과 함께 "우리의 친밀한 형제 중국께서 우리의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 위대한 혁명전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광고문구를 낭독한다. 이러한 광고가 남한에서 나오게 되면 모두 생뚱맞다는 듯한 표정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다른 것 같다. 상업광고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광고문구는 북한 소비자에게 다소 호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북한 TV뉴스에 등장한 설사약 광고


북한에서 상업광고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과 함께 '경제적 자유화'를 실험하는 북한 정부의 작은 도전이 아닐까.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 생필품이 원활히 생산되는 그날에는 보다 다양한 상업광고가 나올 것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북한 텔레비전 상업광고에 나오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2009년에 한국에 온 대학생 A씨는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 대형마트에 가려고 했는데, 길 찾는 게 여의치 않자 '남한에서 길을 모를 땐 택시만 타면 된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 웬 걸, 택시기사 아저씨가 모퉁이 하나 돌고 '코 앞'에 내려주는 게 아닌가. 남한에서의 첫 경험이야 좀 황당했지만 이후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며 쓰면서도 학업에 정진해 이제 대학생이 된 A씨의 남한 적응기를 들어보았다.

 커피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이른 아침 만난 A학생에게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더니 '간밤에 공부하다 새벽 4시에서야 잠이 들었다'고 말한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좀 달아나지 않겠냐는 물음에 아직도 커피는 적응이 덜 됐다.

"사람들 만나서 담소를 나누거나 스터디할 때 카페 말고 마땅한 공간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커피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5천 원이면 밥 값인데 이 돈 내고 사먹어야 돼?'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한국은 아이부터 대학생, 어른들까지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A학생이 처음 마셔본 커피는 "에스프레소"다. 친구와 카페에 갔는데 '무슨 음료를 마실 거냐고 묻는 말에 선뜻 답을 하지 못했다. 메뉴판을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는 말 밖에 없었기 때문.

"아무거나 마실게."



“뭘 마실 건지 이야길 해야 주문을 하지.”  
 하는 수 없이 다시 메뉴판을 보던 중 왠지 맛있을 것 같은 이름 하나를 찾았는데 하필이면 희석시키지 않은 커피 원액 그대로인 ‘에스프레소’를 골랐다.  
 “어 진짜? 너 에스프레소 좋아하는 거야?”  
 의외라는 듯 쳐다보는 친구에게 자기도 모르게 ‘응’이라고 답변한 A학생. 얼마 안 있어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라는 말이 들렸고 음료를 찾으러 간 A학생은 그제서야 친구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있었다.



“갔는데 글라스가 안보여요. ‘커피 어딴데요?’ 하고 물었더니 ‘여기 있습니다’라며 조그만 알 잔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것도 딱 절반만 채워져 있고요. ‘어? 나 놀리나?’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조그만 ‘알잔’ 속에 든 쓴 커피맛은 또 한 번 A학생을 충격에 빠트렸다.  
 “한 모금 마셨는데도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커피 커피’ 하기에 처음 커피란 걸 마셔봤는데, 그때 이후로 커피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 손님만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알바는 어려워



A학생은 당시 할머니와 둘이 생활하면서 보조금을 받았지만, 핸드폰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알바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왔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배우면서 일하고 싶다’는 A학생의 말에 편의점 주인은 흔쾌히 받아주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배우면서 일 한다며 격려해주셨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모를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웃음) 천천히 잘 알려주셨지만 제가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못해서 손님만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했던 기억이 나요.”

손님들이 특정 상품명을 대며 어디에 있냐고 물어볼 땐 ‘잘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찾아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고, 멤버십카드를 일반 신용카드로 착각해 계산하려고 했다가 계속 뽅뽅 소리만 나 당황하기도 했다.

“제일 난감한 게 담배였어요. 다 영어로 써져 있고, 뒤에 한글 이름이 작게 쓰여 있는데도 너무 생소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마세(마일드 세븐, 담배 이름) 달라고 하는데 마세가 된 줄도 모르겠고 손님이 ‘저거요, 저거’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헤매는 거예요.”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도 유독 까칠했던 수표 손님, 페트병 아저씨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 A학생은 수표에 대해 미리 주인 아주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수표를 받아들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표를 조회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나요. 모르면 전화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도, 어떻게 물어봐야 할 지 표현이 안돼 땀만 나더라고요. 그때 손님이 무슨 이런 알바를 쓰냐고 주인아주머니께 뭐라고 했었어요.”  
 진상아저씨 한 분은 페트병에 담긴 맥주를 다 드시고는 빈병을 들고 와서 자꾸 ‘리필’을 해달라고 졸라댔다. A 학생은 당시 ‘리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

“예? 뭐요?” “리필 몰라? 리필 달라고.”

알고 보니 아저씨는 알콜중독이었고 가끔 이 편의점에 와서 술을 더 달라며 진상을 피우는 손님이었던 것.

“그 아저씨 보고도 한동안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침엔 무서워서 경찰을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경찰을 불려서 경찰서로 연행돼 가셨던 것도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맨날 이삼천 원 들고 와서 손 떨면서 술 달라고 하셨는데, 좀 안돼 보여서 여름에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들을 가끔 그 아저씨에게 챙겨드리곤 했어요.”



## 온라인 게임 몰라 PC방서 ‘인강’ 들었어요!

그렇다면 A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땠을까? 그는 친구들과 처음 PC방에 갔을 때의 경험을 들려줬다.

“제가 남한에 왔을 때 FIFA나 서든이라는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PC방에 데려갔는데 전 컴퓨터를 거의 사용할 줄 몰랐거든요. 애들과 어울려야 될 것 같아서 따라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라면냄새, 담배냄새 온갖 잡내가 나서 머리가 멍했어요.”



친구들은 A학생에게 게임 계정도 만들어주고, 게임하는 방법도 알려줬지만, 할 줄도 모르고 재미도 없는 데다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키보드를 사용한다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6시간 정도 PC방에 있었는데 게임 총소리도 시끄럽고, 애들이 막 욕 하면서 게임 하니까 완전 미치겠는 거예요. 나중엔 (게임 속 가상의 적이) 안 죽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요. 친구들이 저보고 북한 욕 알려달라고 했을 땐 욕 못한다고 했는데 말예요. (웃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재미 있다.

“그날 시간은 남았는데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서 PC방에서 EBS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로그인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그걸 보고 애들이 엄청 충격먹더니 다음부터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A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초기에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왜 수업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을까?’ 고민했었다고 한다. 잘 해야겠다는 압박감이 있어서인지 수업시간에 분명 쳐다보며 듣고는 있는데 외국어 듣기평가를 할 때처럼 무



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고민고민 하다가 선생님과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은 남한 말에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고 억양에 차이가 있어서인 것 같으면서 국어 듣기 평가용 음성파일들을 건네주셨다.

“mp3 플레이어에 가요파일을 다 지우고 대신 듣기평가 모의 문제 파일을 넣었어요. 당시 소녀시대 노래가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아쉽게도 다 지워야 했죠. 그리고 매일 들으면서 다녔더니 그제서야 들리더라고요. 그 뒤로 A학생은 한국어 듣기평가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



A학생에게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뭔지 물었더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오늘 준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진로가 아주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며 노력하면 분명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글. 기자희〉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민주평통은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한반도 통일 모델-독일과 중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5월 27일 (수) 프레스센터에서 ‘2015 남북관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독일통일 모델과 중국 양안형 모델을 놓고 남북한 통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유용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차이를 감안해 우리의 통일에 가장 적합한 통일모델을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 “분단 관리 차원이 아닌 변화를 위해 노력할 때”



▲ 현경대 수석부의장



▲ 최진우 회장(한국정치학회)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의 상황과 북한주민의 인권 등을 놓고 볼 때 분단 관리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틀, 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국정기조의 하나로 평화 통일 기반구축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통일기회가 왔을 때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통일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중국 등 사례가 우리 현실 여건과 다르지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위에 민족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최진우 한국정치학회장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해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라며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 獨 통일모델은? 中 양안간 경제협력모델은?



▲ 염동재 교수(성균관대)

최진우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염동재 교수(성균관대)는 “독일과 한반도가 통일여건 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통일의 성과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염 교수는 “북한 내 장마당의 확대와 휴대전화·인터넷 보급 확대로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 통로가 더욱 넓어지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여건도 독일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기적 교류·협력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도움이 될 요소는 하나라도 더 확보해 나가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홍호 교수(한양대)는 “중국-대만과 남북간 통일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통일 모델이라기보다는, 정치문제를 제외한 부문에서 교류하면서 서로간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방법에 있어 유용성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비정치적 부문, 정부·민간 부문을 철저히 분리했기 때문에 민간교류와 비정부 부문의 교류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에서 ‘통일’이라는 말은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준비했던 점으로 미루어 우리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적게 이야기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우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용히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문홍호 교수(한양대)

## 독일-양안, 필요한 부분 취합해 통일모델 만들어야



▲ 유효열 교수(고려대)



▲ 이호령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이어진 토론 시간, 토론자들은 독일모델과 양안모델을 놓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하는데 있어 적합성과 차이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유효열 교수(고려대)는 “두 모델을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취합해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통일 모델의 핵심은 동독 주민의 변화이고, 동시에 소련 등 주변 환경이 독일통일에 우호적이었다 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호령 박사(한국국방연구원)는 양안관계와 독일통일의 공통점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민관이 분리되어 자유로운 이동 및 교류가 가능했으며 ▲북한의 3김 독재 체제와 같은 유일지도체제가 상대는 아니었다고 전제했다. 특히 독일 통일 당시에 비해 달라진 환경을 감안해 향후 국제사회의 변화와 지정학적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통일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 상상 이상의 상황 대비, 독일식 모델에 주목

손기웅 박사(통일연구원)는 독일식 모델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동독은 주민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서독체제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고 “동서독간에 이뤄진 교류협력은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교수(중앙대)도 “국가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므로 독일식 모델을 참고하여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 손기웅 박사(통일연구원)

▼ 박병광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태현 교수(중앙대)

▼ 조운영 교수(중앙대)



박병광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는 “우리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대상이 있어 그동안 많은 정책적 준비를 해왔겠지만 중요한 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되 그 변화의 가능성에는 북한의 시장과, 북한의 붕괴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운영 교수(중앙대)는 독일모델과 함께 오스트리아 통일모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도 오스트리아도 지도자들의 단합과 국민들의 결속에 의해 짧은 기간 안에 통일을 이뤄냈으며, 통일을 위한 결정적 요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과 대륙의 충돌이 있는 유럽에서 독일의 평가가 지금의 유럽을 만들었다”며, “동북아의 불안정한 상황도 대륙과 해양세력의 충돌로 볼 수 있는데 한반도 통일은 대륙과 해양세력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독일통일모델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반도 상황 많이 달라

그러나 김학성 교수(충남대)는 “통일 전부터 독일정책에 대해 많이 벤치마킹 해왔고 독일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맞지만 분단시기나 통일과정에서 독일만의 특수한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다. 대표적인 예로 동독이 것처럼 쉽게 무너진 이유는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며 이는 북한과 차이가 많다고 주장했다.



▲ 김학성 교수(충남대)

▲ 고유환 교수(동국대)

고유환 교수(동국대)는 “독일 통일의 경우 유럽통합이라는 외적 변수가 작동하지 않았

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독일의 통일은 NATO라고 하는 집단안보체제가 있었고 EU라는 경제공동체가 있어 유럽에 더 이상 안보우려가 없다는 주변국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 양안관계 모델이 주는 시사점들



▲ 김예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예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양안과 한국 모두 이데올로기 차이가 있고 극단적인 대립 상황들이 있었던 점은 같지만, 한반도는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 핵위협 등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양안은 ECPA(경제협력기본협정)와 같은 경험을 이뤄냈다”고 차이점을 비교했다. 그리고 이는 “대화과 소통 그리고 민간교류의 지속과 확대를 통한 것으로, 극단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방식, 적대의식 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양안은 민간교류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광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는 “양안관계 모델에서 봤을 때 우리도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 등이 열릴 때 ‘하나의 한국’이란 원칙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민족대단결, 평화통일, 외세불개입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나 대만의 통일 화해협력정책에서 반관반

민, 선경후정의 원칙에서 따라 접근하는 방식도 참고할만 하며, 독일사례든 양안모델이든 무언가를 선택할 경우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

전성홍 교수(서강대)는 “남북한의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나 돌발적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분단을 관리하는 양안관계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했다. 통일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의도치 않는 결과에 대한 개연성이 높다는 것. 아울러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종윤 교수(연세대)는 “남한 주민들의 진정한 통일준비는 통일준비 활성화로, 논의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준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단순한 남북교류의 수준을 뛰어넘는 상호의존의 관계까지 끌고 가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



▲ 전성홍 교수(서강대)



▲ 배종윤 교수(연세대)

반면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독일 통일 전에 서독정부가 경제교류가 되면 이것이 매개가 돼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동서독 간에는 경제와 통일 문제가 분리돼 있었지만 우리는 양자가 견고하게 연계돼 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류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된 경우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그밖에 통일 모델 및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이어져

한편 이수석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는 흡수통일, 합의통일 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주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흡수통일이 아니고 합의통일이고 이러한 선택은 곧 국민투표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평소 교류협력을 해나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다른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국민투표에 대비한 통일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수석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용호 교수(연세대)

김용호 교수(연세대)는 “통일준비는 통일만이 목표가 아니라 통일 이후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갖추는 것인데 통일준비가 너무 통일 과정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통일 이후에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이프러스나 모잠비크, 북아일랜드, 미국 남북전쟁 사례까지도 폭넓게 연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박찬봉 사무처장

끝으로 박찬봉 사무처장은 “오늘 토론은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범위를 좁히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상당히 유익한 토론 같았다”며 “독일은 이미 통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중국 대만은 아직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 독일 통일은 짧은 시간에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이뤄졌다는 점” 등의 특징을 전제로, “국내 통일논의의 여러 방면에서 주도하시는 남북관계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실천 가능한 통일준비의 논의를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광복70주년 기념' 제2차 평화통일 대토론회 개최







민주평통은 5월 12일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8천만이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대토론회는 민주평통·국민대통합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련이 있을 때 더욱 강해지는 한민족 DNA를 통일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면, 통일한국은 2030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5만 달러의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일·대북정책 전문가, 국회의원, 탈북민, 종교계 인사 등 다양한 영역의 패널들로 구성되었으며, 통일미래상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민간, 국제사회 등 섹터별 전략을 논의하고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전북지역회의 통일 청소년 댄스퍼포먼스 대회 열어



전북지역회의(회장 김영구)는 5월 23일 전북도청 야외광장 특설무대에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평화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작년에 이어 '제2회 청소년 퍼포먼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차 동영상 예선과 2차 예선을 통과한 12팀이 출전해 경합을 벌였으며, 창의적이고 이색적인 평화통일 메시지를 댄스로 선보였다.



### '한반도 통일과 한미관계' 주제로 한미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통은 '한반도 통일과 한미관계,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한 한미 평화통일 포럼을 5월 21일 LA 리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통일한국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 1세션에서는 '통일을 위한 한미공조 방안'을 주제로 △북한의 개혁 및 개방 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의 체제변화 등 통일을 위한 한미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2세션에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통일의 편익'을 주제로 △통일 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미동맹의 역할 △통일이 주는 주변국 편익 및 비전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 성남시협의회, 경기도 청소년 통일토론대회 개최



성남시협의회(회장 김현모)는 5월 23일(토)~24일(일)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15년 경기도 청소년 통일토론대회 - 제 7회 청소년 통일 토론광장'을 열었다.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미래지향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이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대회에서는 토론교육 연수 및 실습, 전문가 주제 강의, 학생 모둠토론, 학생 최종토론 및 강평 등이 진행됐다.

## 동대문구협의회 NAUH와 북한 '장마당' 재연 행사 열어



서울 동대문구협의회(회장 신상균)는 5월 29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지역주민, 관내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및 청량리역 광장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청년북한인권단체 NAUH와 함께 북한 '장마당' 재연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이 전시됐고 북한 음식을 시식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거리 퍼포먼스를 통해 꽃제비와 상인의 삶을 재연해 보임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실제 생활상과 북한 인권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 베트남협의회 하노이지회, 한+베 평화포럼 개최



베트남협의회 하노이지회(회장 전종규, 지회장 김정인)는 5월 22일 '통일 이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 사회적 방안'을 주제로 2015 한베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하노이지회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베트남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베트남 통일 이후 사회 문화적 민족동질성 회복의 사례를 통해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동질성 회복 방안을 고찰했다.

### 통일미래세대 육성



고등학생 역사·통일 골든벨,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시도 본선대회가 인천권역(5.14, 고등학생)과 충북권역(5.18, 중학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열렸다. 고등학생 골든벨은 인천권역에 이어 19일 대구권역 및 충북권역, 20일 광주권역, 27일 서울권역 및 대전권역, 28일 강원권역, 30일 전북권역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중학생 퀴즈왕대회는 충북권역에 이어, 19일 광주·전남권역, 28일 대전·세종·충남권역 및 부산·울산권역에서 각각 열렸다.



▲ 경기 동두천시협의회



▲ 경북 고령군협의회



▲ 경북 청송군협의회

경기 동두천시협의회(회장 안만규)는 5월 7일과 14일 동두천여자중학교, 보령여자중학교에서 각각 '2015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이야기'를 열었다. 경북 고령군협의회(회장 박해동)는 8일 고령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으며, 경북 청송군협의회(회장 김양태)는 13일 청송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 경북 칠곡군협의회

▼ 경기 가평군협의회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김윤오)는 15일 석척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김기복)는 19일 가평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2015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개최했다.





▲ 강원 횡성군협의회



▲ 전남 장성군협의회

▼ 경기 김포시협의회



▼ 경북 군위군협의회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웅)는 5월 27일 횡성여자고등학교 학생과 함께 '2015년 탈북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주부덕)는 28일 삼계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과 함께 '2015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조진남)는 29일 사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생 1일 통일교실' 행사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본국)는 효령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2015년 초등학교 눈높이 통일교실'을 열었다.



◀ 충남 천안시협의회

▼ 경기 시흥시협의회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김승태)는 5월 8일 임진각 일원 및 파주DMZ 일원으로 천안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청소년 통일안보현장견학'을 다녀왔으며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김천규)도 12일 군서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과 함께 초중고 통일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 경기 여주시협의회



▲ 전북 장수군협의회

▼ 경기 안양시협의회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오찬웅)는 14일 여강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제2땅굴, 철원 평화전망대 지역으로 청소년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으며, 전북 장수군협의회(회장 고강영)는 21일 거제포로수용소에서 백화여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청소년 통일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실시했다. 경기 안양시협의회(회장 이상호)는 27일 양명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2015 고등학생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 경북 군위군협의회



▲ 제주 지역회의

▼ 경북 울릉군협의회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본국)는 5월 5일 '군위 어린이날 큰 잔치'에 참가해 '통일이 되면 사생대회'를 열었다. 제주 지역회의(부의장 김소택)는 12일 제주대학교 통일동아리 호피스(好-Peace), NAUH와 함께 '남·북 청년(대학생) 통일 토크'를 개최했다.

경북 울릉군협의회(회장 김종문)는 20일 관내 4개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라사랑 전 국민 독도 밭기 운동 행사'를 열었으며, 경남 김해시협의회(회장 안병석)는 21~22일 파주 통일대교 일원에서 관내 고등학생, 교사들과 함께 '2015 청소년 통일캠프'를 개최했다.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22일 경상대 대학생 및 통일동아리 회원, 교수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대 통일동아리 발대식 및 열린 통일강좌'를 열었다.



▲ 경남 김해시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민주평통 의료봉사단(단장 김철수)은 5월 30일 2015년도 제3차 의료봉사활동을 서울 관악구 소재 양지병원에서 실시했다. 관악구 및 동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진료와 함께 시력 측정 후 인경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무료로 제작해주었으며, 비상 상비약이 담긴 의약품 구급함도 전원에게 나누주었다.







▲ 경기 지역회의

경기 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는 5월 13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공동지원하기 위해 장학사업과 취업·의료·법률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 전주시협의회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송현만)는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멘토, 멘티, 가족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했으며 같은 날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지인)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강화 제적봉 평화전망대와 유적지를 돌아보는 '통일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 충남 보령시협의회



▲ 서울 송파구협의회



▲ 부산 지역회의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윤오현)는 16일 방이동소재 통일농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농원'을 개장했다.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19일 경주, 울산 일원에서 관내 북한이탈주민들과 통일여성리더아카데미 역사통일 기행을 실시했다.

통일문화 확산



▲ 경남 함안군협의회



▲ 충남 계룡시협의회





경남 함안군협의회(회장 이현석)는 5월 2일 군민의날·아라제 행사장에서 한민족 동질감 조성 및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탈북예술인들로 구성된 GK하니예술단을 초청해 공연을 열었다.



▲ 경기 구리시협의회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이진구)는 3일 장성 편백나무소에서 국가유공자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를 개최했으며, 경기 구리시협의회(회장 김중태)는 9일 한강둔치에서 제16기 활동을 되돌아본 후 광복 70주년 통일염원을 담아 구리시민들과 함께 통일기원 '합도·합수식'을 열었다.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최재경)는 12일 무궁화공원에서 '평화통일 및 군민안녕기원대회'를 개최했으며, 경북 성주군협의회(회장 김영조)는 14~17일 성박 숲 잔디광장 통일홍보관에서 '행복한 통일로 가는 북한 사진전'을 열었다. 서울 은평구협의회(부위원장 전우대)는 22일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먹거리 나눔 행사인 '통일한마당'을 열었다.

▲ 강원 홍천군협의회

경북 성주군협의회 ▶



서울 은평구협의회 ▶



▲ 강원 양구군협의회



▲ 충북 충주시협의회

강원 양구군협의회(회장 이준기)는 25일 양구 공취축제 행사장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탈북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백두한라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했으며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중호)는 27일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북 실상 바로 알기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 서울 금천구협의회



▲ 경북 구미시협의회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5월 6일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8일 관악농협에서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배인철)는 14일 구미대학교에서 '2015년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대전 서구협의회



▲ 강원 평창군협의회



▼ 충북 음성군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14일 배재대학교에서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같은 날 강원 평창군협의회(회장 김종수)와 충북 음성군협의회(회장 민병대)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5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경남 창원시협의회 진해지회(회장 김길화, 지회장 김을순) 15일 농협주부대학 동창회를 대상으로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했다.



▲ 경남 창원시협의회



▲ 경북 상주시협의회



▲ 경북 의성군협의회



▲ 경기 광주시협의회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21일 '공무원 통일교육'을 개최했으며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오걸수)는 19일 '2015의성군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회'를,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는 27일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2015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각각 열었다.

### 지역 봉사활동



▲ 전남 영광군협의회



▲ 대전 유성구협의회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5월 9일 묘량면 정암산에서 '평화통일염원 및 우리지역 명산 지키기 캠페인'을 개최했으며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김승수)는 14일 유공자 어른신들이 계시는 대전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중국 상하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청년 자문위원들의 통일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월 7~9일 아시아유럽 청년컨퍼런스를 상하이에서 개최했다. 아시아지역과 유럽지역 17개 협의회 청년위원 65명, 국내 여성위원 21명 등 총 86명의 청년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이 준비하는 통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박천봉 사무처장은 "이 시대에 청년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통일준비"라면서 "청년들이 통일준비를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협의회 키르기스지회(회장 이재완, 지회장 전상중)는 5월 30일 국립필하모니극장에서 '케이팝 월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3회 케이팝 키르기스 대표 가수 선발'을 겸해 열렸으며 대회 결과 마나스티키대학에 재학 중인 아르무르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 비슈케크한국교육원을 통해 선발된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석재)는 5월 23일 청도이화한국학교 이화문화관에서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서예대전 행사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 중등부는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오성민 학생이, 고등부는 칭다오청운한국학교 김소현 학생이 대상인 칭다오총영사관 총영사상을 수상했으며 중등부 청운 김상현, 고등부 청운 최희지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베트남협의회(회장 전중규) 여성분과위원회는 5월 8일 호치민 한인여성회 등 현지 여성단체들과 함께 나라사랑 어버이 효도잔치를 열었다. 나라사랑 효도잔치 행사에서는 호치민산업 대학생들이 준비한 한국 전통무용 공연을 비롯해, 사물놀이, 색소폰 동호회 연주, 어르신들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너무 흘러가는 것들을 위해  
잠시 머물다, 서울 샛강

온전한 햇살이 품어 낸 자연의 싱그러움은 강렬했다.  
그리고 그 마주하기에도 벅찬 신록들 사이로 강물이 흐른다. 바다처럼 변화무쌍하지도,  
호수처럼 낭만적인 감수성을 지닌 것도 아닌 조금은 밋밋하고 조용한 물줄기. 서울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한강에서 태어났지만, 금세 잊혀지고 말았던 그 강의 이름은 샛강이다.



회색 빌딩 숲 앞 작은 짙푸름, '앙카라공원'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고층빌딩이 전부인 여의도 도심 한 복판. 풀 한 포기에도 쉬이 내줄  
자리가 없어 보이는 회색 빌딩숲 사이로 강이 흐른다. 이름처럼 흐르는 물줄기마저 안전해 걸음을 멈추고 귀  
를 기울여야 겨우 졸졸거리는 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을 정도지만, 그 느낌이 오히려 위안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 샛강 생태공원

언젠가는 산책로로 또 언젠가는 자전거 길로, 종종 바뀌는 유행에 따라 같은 길도 달리 설명되곤 한다. 샛강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행지로 샛강을 설명할 때 가장 정답에 가까운 말은 생태공원일 것이다. 1997년 잊혀지고 방치됐던 주변을 정리해 강의 생태계를 복원해 낸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이 바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이다. 그리고 이 생태공원을 좀 더 가깝게 만끽하고 싶다면 서울 지하철 9호선 샛강 역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 터키 전통양식의 건축물

샛강 역을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푸름. 생태공원이라고 착각하기엔 아담한 모양새가 고개를 가웃하게 만들게 되는 곳. 바로 앙카라공원이다. 생태공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앙카라 공원은 우리나라의 우호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터키의 앙카라 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기념으로 개원한 기념공원이다. 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터키 전통양식의 건축물, 앙카라 하우스에서는 터키의 민속 용품 등을 직접 구경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생태공원 탐방 전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 터키 전통포도원 주택





## ‘샛강’, 친숙한 듯 낯선 어떤 이름



평탄한 흙길로 다져진 샛강 생태공원길은 영등포 생태순환길 중 한 코스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샛강 역에서 출발해, 양화대교까지 이어지는 5km 코스를 추천한다. 늘 그 자리에 있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더 쉽게 밀려났었던 공원은 아이러니 하게도 인적이 드물었던 시간만큼 비교적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 샛강 생태공원

직선으로 이어진 평탄한 흙길이 슬슬 지겨울 쯤엔 살짝 샛길로 빠지는 재미도 쏠쏠하다. 샛길의 나무테크 위를 걸으면 좀 더 가깝게 샛강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수질 개선과 샛강의 생태환경을 고민해 조성된 곳인 만큼, 다양한 습지식물과 잉어, 누치 등의 어류, 청둥오리, 해오라기 등의 희귀동식물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복적되는 주변의 한강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거닐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 길이라고 암묵적으로 규정지어진 길만을 걷던 습관 때문에 한껏 발돋움한 잡목들 사이로 한 걸음 내딛기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늘 그렇듯 처음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금방 배우게 된다. 너무 빨리 흐르지도 그렇다고 오래 머무르지도 않는 강물에 발맞춰 걷다보면, 먼저 흘러가 버린 것들에 대해 긴 배웅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후회도 반성도, 변명도 눈물도 뿌연 흙먼지와 유유한 강물 사이로 흘려보내고 나면 호들갑 떨었던 지난 자신이 부끄러울 만큼 사소하게 느껴진다.



## ‘철’ 없는 어른의 ‘철’ 지난 탐험, ‘선유도공원’



처음 싹을 틔우는 어린 잎 마냥 온 몸으로 광합성을 했다면, 슬슬 그늘이 그리워진다. 마침 발길 역시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 들른 곳이 양화대교 중간에 위치한 선유도공원이다. 과거 선유정수장 건물을 최소한으로 개조한 후 자연과 공유한 곳으로 원래는 신선이 유람을 즐겼다는 한강 위, 작은 섬이었지만, 지금은 무지개다리를 이용해 건너면 된다.





11만4,000㎡의 넓은 공원 내부는 크게 산책로와 정원 공간으로 나뉘는 데, 면적이 넓은 만큼 숨은 명소가 많아 남녀노소 누구나 여름날, 모험을 떠나기에 좋다. 강변을 따라 버드나무가 늘어지고, 시멘트 담장을 따라 담쟁이넝쿨이 푸른 잎을 활짝 펼친 곳. 넝쿨 너머 손을 더듬으면 비밀의 화원으로 통하는 문이 있거나, 두 팔을 양껏 뻗어도 끌어안지 못할 만큼 고목 위 어딘가에는 분명 오두막집 하나쯤은 숨어 있을 것 같은 공원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일상적인 근심, 걱정을 무장해제 시키는 힘이 있다.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환경물놀이터, 생태숲, 선유도이야기관, 시간의 정원 등을 신나게 거닐다 지치면, 곳곳에 놓인 평상이나 벤치를 이용해 쉬어가도 좋다. 또 질푸른 녹음을 배경으로 어디서든 화보 같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여름날의 추억을 남기기에 그만이이다.



▲ 생태숲



▲ 수생식물원



▲ 시간의 정원



## 미안하다는 말보다 감사의 인사를 먼저 건네며, '국립서울현충원'

하루 종일 앞서거니 뒤서거니 눈인사를 나누던 하얀 나비를 다시 만난 곳은 국립서울현충원(이하 '현충원')입구였다. 마지막 행선지로 현충원을 찾은 까닭은 순전히 셋강이나 선유도 역과 같은 지하철 9호선으로 위치적으로도 가깝게 닿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즘은 종종 현충공원으로도 불린다는 국립묘지는 기억 속 모습보다 덜 엄격하고, 더 친숙했다. 너른 나무 그늘 아래 보이스카우트 유니폼을 갖춰 입은 어린 학생이 번쩍 손을 들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면, 7월은 무슨 달이냐”는 엉뚱한 질문에 7월도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인솔 선생님의 답변이 이어진다. 감탄사와 탄식이 동시에 새어나온다. 새삼 일 년 중 6월 한 달만 기억해야 될 이름이 아닌, 그럼에도 너무 빨리 잊혀져가는 그 이름들이 새겨진 비석을 유심히 바라봤다.



원래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군인들의 영정을 모신 국군묘지였다가, 국립현충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지금은 故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과 국가유공자 등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국립묘지로 지정돼 있다.

이렇듯 엄숙한 공간에 구태여 공원이란 단어를 보탠 까닭은 언젠든 호국영령들이 잠드신 이 곳에 언젠든 후손들이 방문해 편안하게 머물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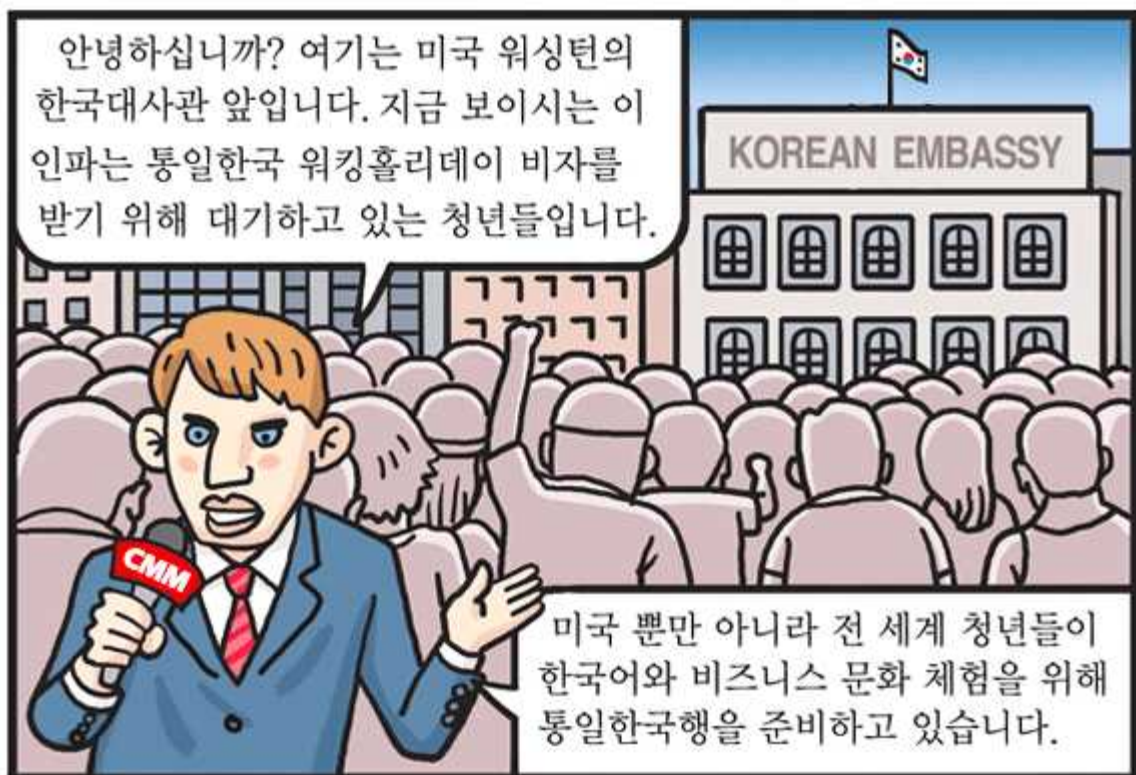
등 뒤의 관악산 줄기에서 흘러내리는 바람이 슬그머니 등을 밀어줄 때마다 못이기는 척 한 발씩 더 내딛으며, 마음 속 잊고 살아 죄송하다는 말보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건넨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 통일한국 워킹홀리데이, 전 세계 열풍!!

이택중





아침 8시부터 대기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불황에도 통일한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아요. 또 한국어를 배우면 다른 나라에서 취업이 쉽고...



친구가 개성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었거든요.  
경험할 거리가 많다고 추천해서 참여하게 되었죠.





요즘 전 세계 청년들에게 통일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젊은 인재들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체험 기회를 열고 있어 한동안 통일한국 워킹홀리데이 열풍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황해남도 장연 지방의 특산물로 알려진 과배기는 밀가루를 반죽한 뒤, 두 가닥으로 꼬아 타래를 만든 것을 끓는 기름에 익혀낸 다음 엷물을 바르고 볶은 참깨를 뿌린 음식이다. 단맛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특별한 맛을 내기 때문에 황해도의 특산물로 꼽힌다.

### 요리재료

요리재료 : 강력분 3컵, 이스트 4g, 설탕 2 큰 술,  
소금 1/3티스푼, 물 200CC,  
엷물 30g, 볶은 참깨 10g, 식용유



### 요리방법



1 볼에 강력분 3컵을 넣고 분량의 설탕과 소금, 이스트를 넣고 섞는다.



2 미지근한 물을 넣어가며 반죽하여 한 덩어리로 만든다.





3 반죽에 랩을 씌우고 1시간 실온으로 1차 발효한 후 포크로 찌러 가스를 빼준다.



4 주먹크기 정도로 떼어낸 반죽은 동그랗게 굴러 분할한 후 랩을 씌워 15분간 2차 발효한다.



5 반죽을 반으로 나눠 길게 민 뒤 파베기 모양으로 만든다.



6 180℃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내고 엷물을 바른 다음 볶음참깨를 뿌려 상에 낸다.



완성



요리연구가\_ 나 유 신

## 담백하고 소박한 황해도 음식

황해도는 평야, 강, 바다, 산을 두루 접하고 있어 다양한 요리가 발달했는데 음식의 간은 약간 심삼하고, 향신료나 양념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담백, 소박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국수나 만두, 파베기처럼 밀가루를 사용한 음식이 많으며, 추운 지역의 특성상 김장 김치를 활용한 요리가 발달했다. 밀가루를 이용한 황해도의 대표 음식으로는 김치말이 메밀국수, نیم매죽, 칼국수(밀낭화), 씻긴국수, 밀범벅 등이 있다.





### 남북청년들이 유라시아대륙을 여행하는 찬란한 미래!

글\_ 리쯔

배낭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다녀보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서로 마주하고 있어 배낭여행을 하면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육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육로로 연결된 반도국가이지만 남북 분단으로 사실상 섬이 아닌 섬나라가 되어 외국을 나가려면 비행기나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통일이 된다면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은 물론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유럽대륙까지 육로로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네요.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우리가 통일을 희망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겠지만, 분단 때문에 대륙으로부터 고립된 환경을 벗어나 광활한 만주로, 시베리아로 그리고 저 멀리 유럽까지 육로로 남북의 젊은이들이 여행을 함께 하며 통일로 하나된 나라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꿈을 키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새들처럼 실향민들도...

글\_ 정도령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고성통일전망대나 오두산 전망대에 자주 가보고는 하는데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실향민들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지척에 두고도 가보지 못하는 북녘의 산하와 동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북쪽에 특별한 연고도 없는 저의 심정도 이럴진대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의 마음 제가 미뤄 짐작하는 것조차 큰 실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동부전선의 산하 이곳저곳 그리고 서해안의 바다 이 섬 저 섬 이름 모를 새들은 잘도 이동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건가 하는 아쉬움마저 들게 됩니다. 북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노스텔지어, 서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름 모를 선박에 담아 보내며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헤어진 가족, 친지와 빨리 재회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전망대 부근에 있는 식당들답게 여러 북한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도 많아 미식가인 제가 자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곳의 식당도 별미이고 실향민분들께 고향의 맛에 대한 향수를 잘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원조 본토의 맛 사리원 냉면이나 함경도 아바이 순대와 같은 별미들을 빨리 맛보기 위해서라도 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담백한 북한음식 맛본 후 금강산 감상하고 싶어(금강산도 식후경)

글\_ 이일우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세상을 향해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 꽃망울을 활짝 열어젖힌 꽃들과, 새로 초록 옷을 입은 울창한 숲을 감상하다 보면 우리 산야(山野)가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새삼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분단으로 한반도 북녘의 산하(山河)를 자유롭게 볼 수 없어서 그리움만 쌓여 가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가곡 '누구의 주재런가...'로 시작하는 가갓말처럼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금강산을 직접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암괴석(奇巖怪石) 일만 이천 봉으로 유명한 금강산에서 형형색색(形形色色)으로 물든 꽃과 나무와 속삭이는 새들을 보면서 거닐다가 웅대하고 경치가 빼어난 구룡폭포,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로 유명한 아름다운 연못 상팔담, 한반도 호수 중 제일의 경치와 물빛으로 이름난 삼일포, 계곡의 절경이 뛰어난 만폭동, 주상절리가 무수히 발달한 기반암이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총석정, 층층절벽 만 가지 생김새를 가진 기암괴석들로 이루어진 봉우리 무리인 만물상, 가곡으로 유명해진 천년사찰 장안사, 주봉인 비로봉 등 영상으로만 봤던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가슴벅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열거하지 못한, 전설이 깃든 폭포, 기암괴석, 봉우리, 호수, 절 등은 통일될 때 보는 걸로 기약하고, 끝으로 금강산(金剛山)도 식후경(食後景)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심심하여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는 북한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仙境(仙境)의 경치를 감상하고 싶네요.



# 17기 출범 축하 EVENT

7월 1일 제17기 민주평통이 출범합니다.  
출범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바라는 점을 남겨주세요~



응모 기간	2015. 06.18 ~ 2015.07.05
응모 방법	하단 비밀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당첨자 수	5명
시상 내역	문화상품권 2만원
당첨자 발표	7월 셋째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심표, 느낌표! | 내 친구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 내 친구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작품을 자랑해주세요

내 작품은 물론!  
자녀, 동생, 같은 반 친구 등의  
그림(포스터), 시, 수필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소개해 주세요.



- | 응모 기간 2015. 06.18 ~ 2015.07.05
- | 응모 방법 파일첨부로 응모해주세요
- | 당첨자 수 10명
- | 시상내역 카페베네 상품권 1만원
- | 당첨자 발표 7월 셋째주



파일첨부 응모

go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온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통일 골든벨

## Quiz 6차

5~6월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통일 골든벨' 시도대회가 개최됩니다. "바로알자 우리역사! 열어가자 행복통일!" 슬로건 하에 개최되는 **민주평통 역사통일 골든벨!** 벌써부터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6주에 걸쳐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퀴즈도 풀고, 경품도 받고~!

**Tip** 6회 모두 참여하신 분께는 대박경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6차 Quiz



고려의 정궁(正宮)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에 속하는 개성 000은, 2007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차에 걸쳐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6월~11월 6개월간 공동발굴조사에 다시 착수하기로 최근 합의하였습니다. 000에 들어갈 유적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만월대    ②첨성대    ③평양성

힌트보기



**응모기간** 6차 퀴즈 - 2015. 6. 15 ~ 2015. 6. 21  
**응모방법** 하단에 비밀댓글로 정답을 써주세요.

**일반경품** 6차 퀴즈에 응모하신 분 중 20명을 추첨하여 도너츠 구매권(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대박경품** 1차 ~ 6차 퀴즈에 모두 응모하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푸짐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 '다섯 단어로 말해요'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olpio@naver.com	스콜피오
2	**s18cks@hanmail.net	차차차
3	**oalexiel@naver.com	자스민
4	**ettyhalf@naver.com	kjh2248
5	**y1220@naver.com	빈맘



###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1	**ddk0915@hanmail.net
2	**ando90@hanmail.net
3	**01413257@gmail.com
4	**tistlyj@hanmail.net
5	**sporter@hanmail.net
6	**e6956@hanmail.net
7	**s055@daum.net
8	**go99@nate.com
9	**msil3445@naver.com
10	**b513@naver.com



11	**mk28@hanmmail.net
12	**rahkellybom@gmail.com
13	**eengp1@hanmail.net
14	**nk11@naver.com
15	**cacdpu@hanmail.net
16	**h7133@naver.com
17	**w2840@naver.com
18	**bms@hanmail.net
19	**nna25@hanmail.net
20	**dgidskan@naver.com
21	**neunmi@nate.com
22	**ff2009@hanmail.net
23	**l2mom@hanmail.net
24	**ereyetg@naver.com
25	**hwamail@hanmail.net
26	**r5_@naver.com
27	**ol82@naver.com
28	**3185@hanmail.net
29	**h2293@hanmail.net
30	**marche5297@hanmail.net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퀴즈 당첨자

# e-행복한통일 통일골든벨 퀴즈 5차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통일 골든벨 5차 당첨자

번호	닉네임	이메일주소
1	옥골	**c0124@naver.com
2	푸히히425	**young425@hanmail.net
3	예고구	**nkek00@gmail.com
4	이승엽짱	**llymam@naver.com
5	방거화	**718@hanmail.net
6	설탕소금	**7231@naver.com
7	와자비	**a7477@naver.com
8	킴	**kdckdal1@naver.com
9	행복통일~	**won011@naver.com
10	제제네	**ver0503@hanmail.net
11	박옥선	**xxx58@naver.com
12	허니콤	**lmwl@hanmail.net
13	권보희	**oustic21@hanmail.net
14	미소별	**ndymeet@naver.com
15	볼스피자	**lspizza@paran.com
16	골든벨핻팅	**rwlqdlaka@naver.com
17	조은선	**2000ch2000@naver.com
18	므훗악당	**mseheon3@daum.net
19	가라빈가	**wvj235@naver.com
20	심재일	**nea@hanmail.net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